

※ 아래 답안은 모의논술고사 응시자 중 문제별로 최우수점수를 받은 학생의 답안입니다.

<논제 1-1>

전통이란 과거부터 전해져 왔으며 계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쳐서 무의식 속에 존재하게 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 혈통과 남성 중심의 정서가 뚜렷한 한국의 가정에선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반감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민중문화 전통이라 여기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제결혼은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이고 형통을 중시하는 형태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늦췄으며 여성의 활동 범위를 좁게 만들었다. 이는 한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통해 한국가정의 정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외국 부인을 노비처럼 여기는 형태는 한국사회의 가정 문화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없어야 한다.

<논제 1-2>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 가정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속감에 대해 혼란을 가진다. 다문화가정인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국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시아계, 비아시아계, 혼혈유형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각들도 달라진다. 이 궁극적원인은 부모님, 또래집단, 사회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가정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특히 피부색, 혼혈유형에 따라 그 시각차가 크다. 그 편협된 시각 속에서 청소년들은 국적, 소속감에 혼란이 오며,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논제 1-3>

혼혈가정이 한국사회 내에서 편견의 대상이 된 원인에는 사회 전체에 배여 있는 문화적 특성이 자리한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관을 가져온 한국인에게 남편과 아내가 수평적으로 만난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한다. 또한, 외국인에게 인종적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온 한국인의 문화도 편견에 일조해 왔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인류 전체의 유전자는 수없이 뒤섞여 있다. '국가'와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인간이 후대에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의 유지는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단기적인 문화적 편견에 싸여 있기보다 장기적으로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확보되어야 한다.

<논제 II-1>

제시문 (가)에서 따르면 세계 식량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체재인 바이오 연료의 수요가 늘었고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의 수요도 늘게 되었다. 이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부터 식량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식량위기는 식량 자급률이 51.1%인 한국에게도 닥칠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은 자급률 95.5%로 자급이 가능하지만 밀은 0.2%, 옥수수 0.7%, 콩 9.8%로 자급이 불가능하다. 또 한국인들이 라면이나 국수 등 밀이 원료인 가공 식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축산농가의 사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곡물 시장의 위기가 축산 시장에 까지 파급돼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식량기지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쌀 가공 식품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등 세계 식량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논제 II-2>

제시문<다>의 A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공적 작위가 아니라 무위자연이다. B에 따르면 적당한 자기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명리와 재물을 중시하면 곧 잃게 되는 것이다. C에 따르면 지족의 경지가 참된 영원한 만족이다. 따라서 A, B, C,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물질을 추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식량’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비와 같다.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고갈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시문<다>의 A, B, C에서 제시한 자기절제,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족이 이같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만족하고, 식량만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식량위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식량’이라는 재화는 무한정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량’이라는 자원에 매달려 따라다니지 않아야 한다. 적당한 자기만족과 절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측면을 고려하려는 전 국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 만큼 모든 국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논제 II-3>

우선 가정1)에의해서 2003~2004 생산율은 2.8%이고 이를 대입하면 $3,00 + 0.05 \times 2.8 - 0.40DR_{t-1}$ 이다. 또한 전년도증가율을 구해보면 -0.2%이다. 즉, 위 식에 대입해보면 2005년 생산량은 3.22%상승 410(백만t)소비량은 423(백만t)이 되 -13차가 보여 재고량은 55가 되었고 이같은 방식으로 하면 2006년 생산량은 2.0%상승 418

(백만t) 소비량 436(백만t)에 의해 차이가 18이 되어 37이 되었다. 이처럼 계산하면 2008년에 식량 재고량이 고갈 될 것이다